

## 화장행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김 명 리<sup>†</sup> · 김 주 덕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 전공  
(2005년 2월 14일 접수, 2005년 3월 3일 채택)

### A Study for Psychological Effects which Make-up Behavior Has on Women

Myung-lee Kim<sup>†</sup> and Ju-duck Kim

Graduate School Distance Learning Department of Cosmetic & Beau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eongpa-dong 2ga,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Received February 14, 2005; Accepted March 3, 2005)

**요약:** 화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미적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인 관계, 심리적 작용, 자기 강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장을 통한 만족도는 대인 관계의 성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장 행위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심리학적 효과를 가지며 다양한 사회적 효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용분야, 화장품, 보건 분야, 의류학 분야의 심리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화장 심리, 화장 치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장은 외모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장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화장의 심리학적 접근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화장 심리에서 적극적인 화장 치료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치매 노인, 화장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 치료법과 특수 화장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화장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장 행위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앞으로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effect of make-up, to examine women's tendency toward make-up and to figure out relationships between their psychological properties and its functions. This study has verified that makeu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reaction and self-confidence as well as it meets their fundamental aesthetic needs. And further studies about psychological reason why they wear makeup need to be made. Makeup has an effect on their looks and it has a psychological effect of being able to decorate and move their mind. Fi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for psychological approach to makeup could contribute on the study for positive makeup treatment.

**Keywords:** psychological effect, make-up, make-up behavior, make-up treatment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화장이 있다. 현대적 의미의 화장은 'make'(만들다) 'up'(올리다)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은 화장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첨가하고 수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를 가진다. 화장을 하게 되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과 자신감도 상승시킨다. 다시 말해 화장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결점이 커버되는 것은 물론이며, 보다 더 아름다워진 자신을 느낌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즈음의 화장은 외적 감각을 창조하고, 아울러 내적 정신도 건강하게 하는 심리적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화장은 외모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장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미용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스킨케어로 인한 마사지의 릴랙스 효과, 메이크업으로 인한 심리적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향이 가지는 생리, 심리학적 효용 등 화장이 인간

<sup>†</sup> 주 저자 (e-mail: pro3390@hanmail.net)

의 마음에 끼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장 행위가 가지는 사회 심리학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서, 화장의 기능과 심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한 화장이 가지는 심리적인 효과의 검증으로 앞으로 우울증 환자나 치매 노인, 화상 환자 등의 심리적 치료 분야에 화장이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화장으로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인상을 바꾸는 메이크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이미지 관리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여성의 세부적인 심리 특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며, 이 연구를 통해 화장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위한 미적 효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아 존중감, 자기 개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위이며 노력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 1.2. 이론적 배경

### 1.2.1. 화장의 기능

#### 1.2.1.1. 미적 기능

화장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화장을 통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도달하도록 얼굴을 보완해 주는 미적 기능이 있다. 미적 욕구가 화장을 하게 하고,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미화(美化) 본능이 화장을 발전시켜 왔다[1].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얼굴에 큰 가치를 두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얼굴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에서 핵심이다. 따라서 화장하기는 매력적인 외모 가꾸기의 중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은 끊임없이 화장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일수록, 외모에 만족하는 여성일수록 화장이나 화장품 사용에 적극적이라고 한다[2].

화장의 빈도는 사회적 대인 관계의 불안감을 저하시켜 얼굴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화장의 여부는 여성의 인상형성(impression formation)이나 신체매력성(physical attractiveness)증가에 관여한다[3].

#### 1.2.1.2. 사회 심리적 기능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어 하고, 기대되고 인정받는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다움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자신과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얼굴을 중심으로 한 인상 관리의 한 방법이 화장이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화장은 매력적이고 원

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화장은 혼자만의 미적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며, 화장을 함으로써 자기의식이나 사회적 적극성을 얻는다[4]. 화장이 주는 확실한 심리적 효과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활기가 생겨 대인 관계도 원활해진다. 화장으로 인한 대인 관계의 적극성은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퍼스널 페이스가 좋아지게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내성적인 사람도 화장으로 인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화장행위는 대인관계의 한 부분으로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 1.2.1.3. 자기 확인 강화의 기능

여성의 화장 행동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개선하려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화장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다. 다시 말해, 메이크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자기 평가 및 이상적인 자아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아인식의 측면에서 매력적인 외모와 화장의 유효성은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즉,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매력도가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화장을 통한 매력 수준의 향상이다.

화장은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화장요법을 통한 적절한 화장품의 사용은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보다 높게 해준다. 무엇보다 자아 존중감의 회복과 자기상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

#### 1.2.1.4.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의 기능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를 벗어나 고립되어 있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화장은 되고 싶은 자신이라는 대인적인 자기상을 관리하거나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화장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외모가 좋게 평가될 때 이성에 대한 매력이 상승되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되어 대인관계가 활발해져 자기충족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6]. 화장은 사회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아와 관련된 가치 표현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기능도 중요시 되었다. 화장을 대인 관계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과 신분에 맞도록 화장을 한다면, 다른 사람

과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1.2.1.5. 정보 전달의 기능

현대의 메이크업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에 색상을 부여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외형적 미의 추구 행위뿐만 아니라, 미의식 속에서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업(image-up) 행위이다. 그리고 화장은 자신을 표현하는 거울과도 같이 신분, 연령, 건강, 풍요의 정도, 성격 등을 보여주는 척도이고 메이크업은 장소, 목적에 알맞은 외형적 미적효과를 추구해야 하며, 미적효과 외에도 타인의 의사전달, 예의의 표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장의 정도나 스타일에 따라 성격이나 의식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7].

1.2.2. 화장 심리학

1.2.2.1. 케어 심리학

케어 심리학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쾌적하게 하며, 피부 접촉에 의한 마음의 교류, 스트레스 해소를 시킨다.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일본 東北 大學의 심리학 연구실과 Shiseido beauty science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웨이셜 마사지의 심리학적 효과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화장수만 바르는 12명과 마사지를 한 12명을 비교 실험하는 것으로 객관성유지를 위하여 마사지를 처음 받는 여자대학생으로 하고, 향기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마사지 크림의 향은 무향으로 하였다. 그 결과 마사지를 받은 그룹이 심박수, 뇌파에서 자율 신경계의 진정화의 결과로 편안한 릴랙스 상태를 보였으며, 기분 변화를 나타내는 설문지(TAD-ACL)에서도 긴장감 저하, 쾌적감 상승의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심리상태의 변화에서는 긴장감의 해소와 스트레스의 해소, 편안함 등이 나왔고 심박수는 마사지 전에 비해서 느려지고 편안한 상태를 보였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는 오줌속의 카테콜아민 등의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8].

이렇듯 피부 마사지, 두피 마사지 등의 케어는 피부 터치에 의한 반사적 작용으로 안정, 안심, 쾌적함을 느끼며, 뇌파나 심박의 전기 신호로 보아도 심리적 안정을 주며,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호르몬 농도 측정을 해본 결과 상당한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촉각 커뮤니케이션으로 피부의 접촉은 상대방과의 친밀감, 유대감, 믿음의 형성에 많은 연관이 있었다.

1.2.2.2. 메이크업 심리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화장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들 수 있다. 화장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가꾸면서 심리적 안락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효용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대인적 효용으로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함으로써 타인으로써의 평가를 높이는 효용이다. 단정하고 아름다워진 자신이 사회 공동체에서 보다 더 좋게 비추어졌을 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인 것이다.

세 번째는 마음의 건강으로 대인적 효용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 있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9].

실제 重松가 1982년에 피부 질환이 있는 여성에게 한 실험에서 화장으로 커버를 했을 때 자신감이 향상되고 일반적인 활동성, 심리적 편안함, 사고의 외향성, 지배성, 사회적 외향성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울증이나 신경성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에게 색조 화장을 통한 화장 요법을 실시한 결과 몰라보게 밝아지고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2.3. 향의 심리학

상쾌한 향은 기분을 차분하게 하고, 정신적 평온을 가져다준다. 최근 여러 분야의 연구가 향의 심리학적 효과의 해명에 관심을 가지고, 뇌신경계에 대한 효과 정보와 내분비계, 면역계 등의 새로운 분야의 향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향이 지니는 효용으로 심리적으로 쾌적한 향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에 작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분비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인간은 신체에 조그만 이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정신적 압박이나,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 있는 등 심신에 변화가 나타날 경우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3가지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움직여 심신을 정상 상태로 만들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항상성의 기대라고 부른다[8]. 이렇듯 좋은 느낌의 향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심박이나 혈행에 관여하고, 내분비계나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향은 인지, 정서, 주의, 기억, 수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1.2.3. 시대에 따른 화장의 새로운 역할

1.2.3.1. 인상을 바꾸는 메이크업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는 고치기 힘들지만 얼굴의 색이나 분위기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화장을 한 상태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주고받는다면 화장도 인상학에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이나, 너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피부 화장으로 건강한 피부색을 표현하

고, 눈이 올라가서 사나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이라인을 내려 그리거나 부드러운 색의 눈 화장으로 편안한 이미지를 주고, 눈이 처진 사람에게는 눈 꼬리를 올려주는 눈 화장으로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 코, 입 또한 모두 좋은 인상으로 수정 메이크업해 준다면, 보다 좋은 인상이 될 것이고 좋은 인상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어 더욱 사회생활이 즐거워지고 일도 잘 될 것이다. 화장을 통하여 개인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운명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바꾸는 힘이 메이크업에는 있기 때문이다[10].

### 1.2.3.2. 신경정신의 치료 효과

#### 1.2.3.2.1. 마사지의 치료 효과

마사지는 신체의 일부를 문지르거나 주물러서 혈액 등의 순환이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피부에 관한 연구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색이 나빠지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져 얼굴에 나타나는 피부질환은 정신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부의 탄력이 감소되고 피부가 탁해지고 피부착색이 심해진다. 그러므로 적절한 피부 손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피부에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피부 관리와 마사지를 통한 긴장완화요법은 여성의 호르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며 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전신건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사지를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를 줄여주고 혈압을 낮추어 주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움직임의 범위를 늘려주고, 신체의 자연적인 진통제인 엔돌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치료적인 마사지는 의학적인 치료를 증진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스트레스를 덜 받아 민감하지 않게 긴장이 풀리도록 도와준다[11].

우울증환자나 노인 치매 환자의 경우 마사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정신적 안정감, 애정을 확인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고 화상 환자의 경우 피부가 많이 민감하고, 당김이 심하므로 마사지로 인한 피부 호전 효과와 감각 회복 효과가 매우 크다.

#### 1.2.3.2.2. 메이크업의 치료 효과

화장은 자기다움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어 열등감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12]. 화장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시키며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화장요법(cosmetics therapy)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불만으로 여성들이 스

트레스나 우울증이 생기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화장요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메이크업은 피부트러블 환자와 우울증 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의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얼굴 등 눈에 띄는 부분에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의 저하나 고립감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 심리적 치료의 일환으로 커버화장이 행해졌고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성과가 있었다.

浜治, 淺井(1993)은 우울증 환자나 노인성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메이크업이 환자를 치료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미지 시뮬레이터와 음성 분석의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화장을 통해서 무표정이 미소로 밝아지고, 행동성이 많아져 활발해 지고, 사회복귀성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메이크업 자체도 심리적 치료 효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고, 화장한 자신의 모습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사회성이 증가되어 간다. 또한 우울증, 신경성 식욕장애를 가진 사람이 화장요법을 통하여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장애의 치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화장은 얼굴의 결점을 커버하므로 우울이나 열등감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기분의 변화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 1.2.3.2.3. 향의 치료

향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는 향기 나는 식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향기요법이다. 20세기 후반 화학물질의 부작용이 문제시되면서 천연물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연요법으로서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원래 100%의 정유로 질병치료, 피부미용, 심리적 불안정 회복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순수 아로마테라피 외에도 공기청향제, 향수, 방향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 정유는 특별한 치료 효과를 지닌 식물의 꽃, 줄기, 잎, 열매, 수액 등에서 추출한 순도 100% 에센스로 휘발성이 높은 방향물질이다. 허브를 이용한 것은 아로마테라피 중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 허브 향기를 맡거나 허브 즙을 내어 스킵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만 시 심리적 안정과 고통 경감을 위하여 아로마를 이용하기도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부산, 대구, 서울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고졸이하, 대학

**Table 1.** Reliability of Test Items

Aesthetic function	5	0.83
Social-psychological function	12	0.89
Self-identification enhancing function	13	0.89
Social interaction boosting function	7	0.89
Information transferring function	6	0.87
Entire makeup function	43	0.96

교 재학, 대졸, 대학원 이상의 4개의 학력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부산과 대구, 서울 지역에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350부 중 회수된 326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통계, 화장에 대한 성향, 화장의 기능, 화장 기능에 따른 심리학적 특성으로 나누어진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2.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  $\alpha$ 가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모두 전산 부호화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화장의 심리학적 효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화장성향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화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화장성향에 따른 화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chi^2$ (chi-square) 검증과 t-test 검증, 그리고 one-way ANOVA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연구 결과**

여성들의 화장 성향, 화장의 기능(미적 기능, 사회 심리적 기능, 자기 확인 강화의 기능,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의 기능, 정보 전달의 기능), 앞으로 기대되는 화장의 가능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3.1.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별로는 20 ~ 24세가 51.0%, 25 ~ 29세 26.0%, 30 ~ 34세 12.0%, 35세 이상 11.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58.3%로, 전문직 10.7%, 서비스직 8.7%, 기타 7.7%, 전업주부와 사무직 7.3%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중인 여성이 54.3% 대졸 24.3%, 고졸 이하 16.3%, 대학원 이상 5.0%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 여부별로는 미혼이 81.3%, 기혼은 18.7%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 ~ 199만원이 27.3%, 200 ~ 299만원 26.7%, 300 ~ 399만원 18.0%, 100만원 미만 14.0%, 400 ~ 499만원 8.7%, 500만원 이상 5.3% 순이었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은 3만원 미만이 38.3%, 5만원 ~ 7만원 미만 23.7%, 3만원 ~ 5만원 미만 23.3%, 10만원 이상 8.3%, 7만원 ~ 9만원 6.3% 순으로 나타났다.

**3.1.2. 화장 성향**

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 행위는 기초화장(38.0%) - 피부화장(32.7%) - 색조화장(29.3%) 순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여성과 직업이 있는 여성, 학력이 대졸 이상인 여성, 그리고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이 많은 여성일수록 화장 행위 중 색조화장에 신경을 많이 썼다.

② 화장을 하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위하여(28.3%) - 피부의 청결과 건강(24.0%) - 피부보호(20.3%) - 결점커버(11.7%) - 자신감의 부여(9.0%) - 상대방에 대한 예의(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여성,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이 많은 여성일수록 아름다움을 위하여 화장을 하였다.

③ 평소 화장 정도는 기초화장만 한다(37.7%) - 전체 화장을 다한다(30.0%) - 부분화장을 한다(26.7%) - 전혀 하지 않는다(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평소에 기초화장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25세 이상인 여성과 직업이 있는 여성,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이 많은 여성일수록 평소에 전체 화장을 많이 하였다.

④ 처음 화장을 시작한 시기는 대학시절에 처음으로 시작(56.3%) - 고등학교 시절(24.3%) - 취업 이후(14.7%) - 중학교 시절(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화장을 대학시절에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25 ~ 29세인 여성과 직업이 있는 여성,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다른 여성보다 화장을 대학시절에 늦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아침에 화장에 투자하는 시간은 30 min 이하 투자(46.7%) - 10 min 이하(27.7%) - 1 h 이하(16.3%) - 5 min 이하(6.0%) - 1 h 이상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아침에 화장을 위하여 30 min 이하를 투자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여성과 학력이 높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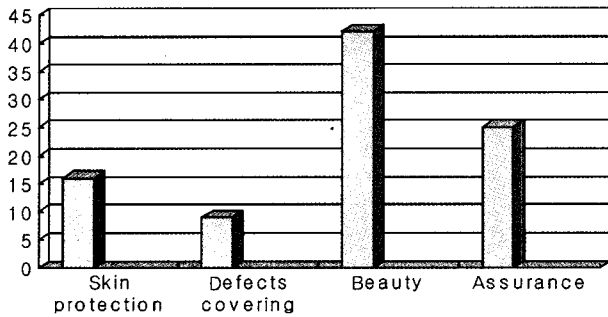


Figure 1. Psychological reasons of putting on m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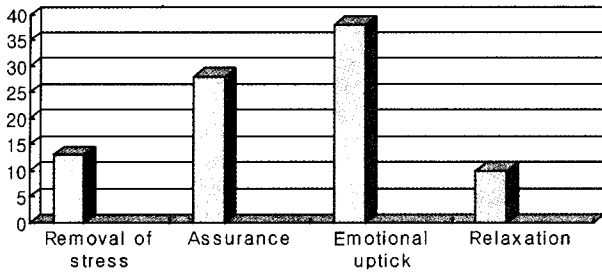


Figure 2. Psychological changes when makeup is beautifully put.

일수록,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이 많은 여성일수록 아침에 화장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⑥ 유행하는 색이나 새로운 화장법에 대해 관심 정도는 전체 평균이 2.87로, 여성들은 유행하는 색이나 새로운 화장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유행하는 색이나 새로운 화장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이 많은 여성일수록 유행하는 색이나 새로운 화장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 3.1.3. 화장의 기능

여성들은 화장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많은 여성일수록, 직업이 있는 여성, 학력이 대졸 이상인 여성, 그리고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용이 많은 여성일수록 화장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① 화장의 미적 기능 수준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화장은 피부와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가 가장 높았고, '화장을 받으면 받지 않을 때보다 자신감이 생긴다', '화장을 하면 하지 않을 때보다 피부가 보호 된다', '화장을 하면 피부의 결점이 잘 커버 된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향수를 뿌린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이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업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화장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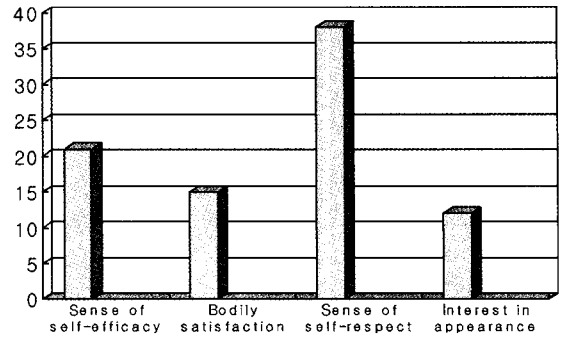


Figure 3. Changes in self-identify through make.

그리고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②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능 수준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평균이 '화장술로 때로는 변화를 주면 기분이 좋아진다'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출 시에는 화장에 신경을 더 쓰며 자신감이 생긴다.', '화장으로 심리 치료가 가능하며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화장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된다.',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이 예쁘게 되었을 때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기분이 밝아지는 여성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회적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능에 관심을 보였다.

③ 화장의 자기 확인 강화의 기능 수준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장은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름다워 지고 싶은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으며 자신을 능력 있게 가꿀 수 있다', '특별한 날(데이트, 면접 등) 직접 화장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받아보고 싶고 만족도도 클 것이다.', '화장을 받는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이고 외모에 대한 관심의 표출이다', '자신만의 향기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도 화장을 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여성들은 메이크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고, 메이크업과 운명 개척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④ 화장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기능 수준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화장 후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적극적으로 된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장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 필수라고 생각하고 활동적이 된다.', '화장은 사회생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화장은 그 시대의 유행과 시대상을 반영한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 후에는 행동의 부자연스러움이나 무뚝뚝한 인상은 감소되어 지는 것 같다'가 가장 낮았다. 이상과 같이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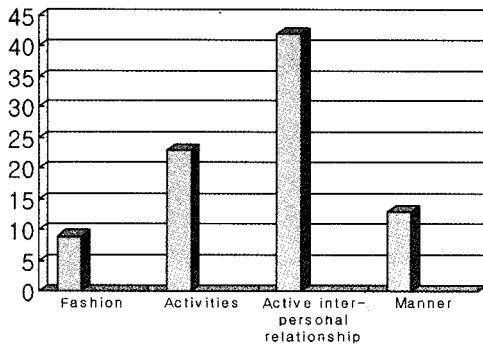


Figure 4. Social reasons of putting on make.

들은 화장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기능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현상과 메이크업 유행 패턴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메이크업의 유행패턴을 보고 시대를 짐작할 수 있다'가 3.08, '화장의 정도로 성격이나 경제력을 알 수 있다'가 3.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기로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가 2.99로 가장 낮았다.

⑤ 화장의 정보전달 기능 수준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자기에게 맞는 화장은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가 가장 높았고, '메이크업의 색채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기분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의 유행패턴을 보고 시대를 짐작할 수 있다' '화장의 정도로 성격이나 경제력을 알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기로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다'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여성들은 화장이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다.

#### 4. 결 론

첫째, 여성들의 화장 성향으로는 여성은 화장 중에는 기초화장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직업이 있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화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비교적 화장시간이 길고 화장품 구매량도 많았다. 그리고 화장도도 높으며, 유행하는 색이나 새로운 화장법에 대한 관심도, 외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을 하는 이유로는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른 것도 특징이었다.

둘째, 화장의 미적 기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화장의 미적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화장이 여성의 매력을 증가시키고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미적 표현이라 하였다. 화장으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고 싶어 하는 현대 여성의 자기 과시적 심리도 작용하며 화장으로 인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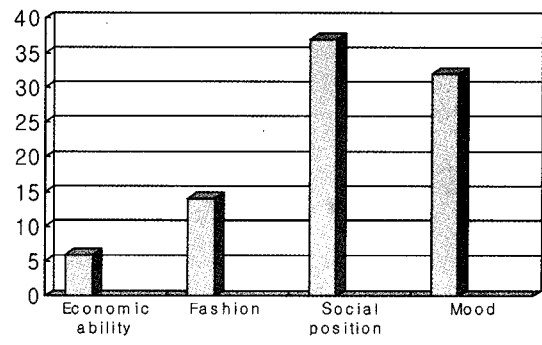


Figure 5. Information from make.

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화장을 하여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화장으로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하고 싶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 화장이 예쁘게 되었을 때 심리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기분이 밝아지는 여성이 많았으며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 화장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자의성을 더 원만히 형성하고, 공격 자의식이 강한 여성일수록 화장을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화장의 자기 확인 강화의 기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화장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가꾸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화장을 하여 얼굴을 변화시켜 자신의 자아개념을 보다 높인다.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얻어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사회적·문화적 흐름의 양상으로, 유행을 지향하려는 심리와 자기만족적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화장의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의 기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화장 후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 적극성을 띄게 되며, 화장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 활동성이 높아지고 화장을 하나의 사회적 예의로 의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화장이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사회적 대인관계에 원만하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다시 말해 화장은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매너의 하나라고 보는 성향이 높았다. 이와 같이 화장은 보다 나은 이미지의 자신을 만들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 나가게 하는 힘을 가진다.

여섯째, 화장의 정보 전달의 기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화장은 신분과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며, 이미지를 바꾸어 기분

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기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메이크업의 색채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메이크업의 유행 패턴을 보고 시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장의 정도로 성격이나 취향, 경제력 등도 알 수 있다. 향수로 그 날의 기분이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도 응답하였다. 이것은 화장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화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미적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인 관계, 심리적 작용, 자기 강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장 행위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심리학적 효과를 가지며 다양한 사회적 효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화장 심리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화장은 외모 뿐만 아니라 마음을 장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화장의 심리학적 접근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화장 심리에서 적극적인 화장 치료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치매 노인의 치료, 화상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 치료법과 특수 화장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화장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高木 修,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1995).
2. 大坊都夫, 社會的 スキルとしてのマナー行動, 化粧文化, **22**, 30 (1990).
3. 문혜경, 심리적 특성과 의복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4. 宇山侑男, 鈴木ゆかり, 메이크업의 心理學的 有用性. 日本化粧品學會誌, **14**(3), P163 (1990).
5. 神山進, 衣服と變身の心理學, 關西衣生活研究所 (1990).
6. 松井, 메이크업의 社會心理學的 效用 (1993).
7. 大坊都夫, 社會的 スキルとしてのマナー行動, 化粧文化, **22**, 30 (1990).
8. 化粧心理學, 資生堂ビューティーサイエンス研究所編, フレグランスジャーナル社 (1993).
9. 余語莫夫, 感情의 傳染現象ならびに 化粧의 心理學的 效用をめぐって, **36**(9), 561 (1995).
10. 小林照子, ハッピーメイク, 日本文藝社 (2002).
11. 余語莫夫, 浜治世, 鈴木ゆかり, 女性の精神的健康に與える化粧の效用, 日本健康心理學研究, **14**(3), 163 (1990).
12. 岩男壽美子, 松井豊, 化粧 心理學 効果-化粧後 心理的 變化. 日本社會心理學會 第25回 大會發表論文集, 128 (1984).